



WA: Washington Department of Commerce Korea Representative Office
Representative: Mr. Guillaume Weill
4F, Seoul Finance Center
136 Sejong-daero, Jung-gu, Seoul, 04520, Korea
Tel: +82-70-4322-1927
E-mail: korea@commerce.wa.gov Website: <http://choosewashington.com>

Washington State: Building Business Legends

Why Choose Washington State?



Washington State means business. We offer you a highly skilled workforce, low-cost energy, an end-to-end supply chain and an inspirational lifestyle that is hard to find anywhere else. The birthplace of such legendary businesses as Amazon, Costco, Expedia, Microsoft, Nordstrom, PACCAR, REI and Starbucks, Washington State offers businesses and investors a critical mass of highly skilled workers in various sectors, for example, the aerospace, agriculture, clean technology, ICT, forest products, life science/global health and maritime sectors.

Washington's Competitive Strengths

- An extremely skilled, talented workforce focused on clean 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maritime and aerospace
- Lowest cost energy in the United States, as low as 4.25¢ per kWh
- More than 92% of energy is derived from renewable sources and the state is committed to using 100% clean energy by 2045
- Washington ranks #5 in clean technology overall, #3 in electric vehicles and #5 in LEED building development
- Governor led initiatives focus on clean energy solutions, strong stewardship of the environment, innovations in grid management and energy storage, and a substantial reduction in CO₂ emissions
- Seattle is the “sister city” of Daejeon, Korea, the 5th largest city in South Korea and a major transportation hub

Rankings

- #1 – Best Places for Business and Careers (Forbes 2018)
- #1 – CNBC's Top States for Business (2017)
- #1 – Best State Economy (WalletHub, 2018 & 2019)
- #1 – Lowest-Cost Industrial Energy Rates (U.S. Department of Energy)



워싱턴 주 상무부 한국사무소

대표: 기욤 베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 센터 4 층 (우: 04520)

전화: (070) 4322-1927

E-mail: korea@commerce.wa.gov

Website: <http://choosewashington.com>

미국 워싱턴주: 사업을 위한 역사와 전통의 장소



미국 직접진출에 있어 왜 워싱턴주일까요?

미국 워싱턴주는 아마존, 코스트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잉 등이 기반을 잡은 지역으로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워싱턴주는 ICT, 청정에너지, 클린테크, 생명공학, 우주항공산업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공공기업까지 워싱턴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워싱턴주는 혁신에 기반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혁신기업들이 워싱턴주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의 근거지를 워싱턴주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기업적인 세제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는 쉰여섯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장비구입에 대한 판매세, 재고세, 이자에 대한 세금, 배당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주 사업환경의 특장점

- 제이 인슬리 주지사 주도 정책들은 청정에너지 솔루션, 환경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 전력망 관리와 에너지저장 방법에 대한 혁신들, 이산화탄소 배출의 획기적인 감소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음
- 청정에너지, ICT, 첨단소재, 해운 및 항공우주 분야의 재능있고, 극도로 숙련된 인력
- 워싱턴주는 킬로와트시(kWh)당 약 42.5 원으로 미국 내 가장 낮은 에너지비용을 제공
- 에너지의 75% 이상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워싱턴 주법은 오는 2030 년까지 100% 무탄소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지정 및 오는 2045 년까지 워싱턴주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을 100% 청정전력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 워싱턴주는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전미 5 위이며, 전기자동차 산업에서는 전미 3 위, 미국 친환경건축물 평가 및 인증(LEED) 건물 개발에 있어서는 전미 5 위를 기록
- 시애틀 대도시 권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잉이 기반을 잡은 미국 내 두번째로 큰 혁신기술 중심지